

# 다시 찾아야 할 이름 잃은 우리의 문인들

## 월북문인 해금 10주년... 이념적 강박 벗는 일 시급

이현식

문학평론가

1988년 7월 19일 당시 정한모 문화부장관이 월북작가들의 해방전 작품을 해금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꼭 10년이 지났다. 그 10년동안 6공화국은 문민정부로, 문민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고, 소련연방은 해체되었으며, 독일은 통일되었고, 냉전체제는 와해되어 그 잔영만이 남아 있다. 강압적인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가고 자본이 전지구를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우리는 그 와중에 국제구제금융에 목을 거는 찬 겨울의 한반도에 서 있다.

### 냉전적 사고의 굴레 벗어야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던가. 민족문학논쟁을 치뤘고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망령에 휩싸였으며 신세대의 현란함에 놀아났다. 그러면서 정작 해야 할 일들은 뒷전으로 미룬 채 여기까지 왔다. 해금조치 이후 한때 월북문인들에 대한 연구열이 왕성하게 불타오르고 출판사들은 너도나도 월북문인 작품선을 내놓곤 했지만 지금은 몇몇만이 고성(孤城) 지키듯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연구는 유행따라 흔들려 이제 월북작가를 논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아집처럼 여겨지고, 월북작가들의 작품 또한 변변하게 정리되지 못한 채 널려 있다.

물론 그동안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월북작가들을 문학사에 편입시켜 정당하게 평가한 문학사료나 연구서들이 출간되기도 했으며 몇몇 출판사에서 민을 만한 판본의 작품집들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최소한의 성과일 뿐이다. 아직도 술하게 많은 월북문인들의 작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도서관 서고에 묻혀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00년, 그 초입은 분명 통일의 시대가 될 것이다. 냉전체제의 잔영이 한반도에서 서서히 견히면서 어쩌면 통일은 성큼 다가오게 될지도 모른다. 월북문인들에 대한 정리 작업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도와 체제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정서와 전통이 하나 되지 않으면 진정한 통일은 요원하다. 어쩌면 오랜 시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지독한 지역감정으로 몸살을 겪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럴 때 공통된 민족문학사를 갖는 일, 똑같은 문학작품을 서로 공유하

고 향유하는 일은 의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된 민족문학사 서술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정서와 전통을 통일시켜가는 일이며 그때 월북문인들의 작품은 그 시금석이 될 것이다. 월북작가 문제는 이제 곧 닦쳐올 통일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중요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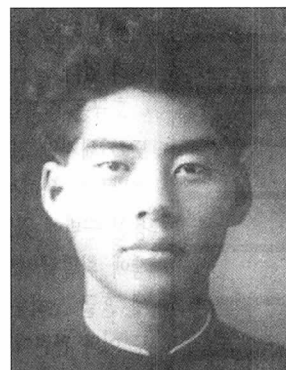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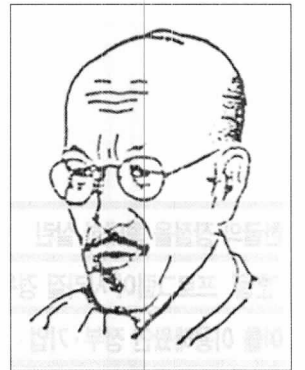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일이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 남아 있는 냉전적 사고의 굴레를 빨리 벗는 것이다. 월북문인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편견은 의외로 뿌리 깊게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특히 중·고교 교육현장이 더욱 심한데, 극소수 문인들을 제외하고는 이들의 작품이 교육과정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우리의 문학적 전통이 제대로 교육됨으로써 사회와 역사와 문학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을 갖게 해야 한다. 적어도 새로운 세대들은 지난 날의 이념적 강박관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 체계적인 전집 간행 절실

한편, 해금에서 제외된 5명의 문인(이기영·한설야·홍명희·백인준·조영출)들에 대해서도 하루 빨리 해금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이들이 88년 당시 해금에서 제외된 이유는 북한에서 고위직을 지냈다는 것이었는데, 이미 그것은 시문화된 조항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홍명희의 《임검정》은 TV 드라마로도 인기를 얻은 바 있고 이들의 작품 또한 공공연하게 출간된 터이므로 굳이 해금조치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이기영, 한설야는 학계에서 우리나라 리얼리즘과 민족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인정받는 터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추가 해금조치 외에도 재북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 또한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 TV 시청을 허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TV를 개방하는 마당에 그 전파력이 훨씬 미미한 문학작품의 공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내가 보기에 북한 문학작품의 공개 출판은 북한 실상에 대한 반민교사의 역할을 하면 했다, 이데올로기적 영향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수준이다.

**해금 조치 이후 한때 월북문인의 연구가 왕성했고, 출판사들은 앞다퉀 작품선을 내놓았지만, 지금은 몇몇만이 고성을 지키듯 남아 있을 뿐이다. 이들을 정당하게 평가한 연구서가 출간되는 등 최소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술한 월북문인의 작품이 서고에 묻혀 있는 게 현실이다.**



윗줄 왼쪽부터 정지용·홍명희·백석·김기림

월북문인들의 체계적인 전집 간행 역시 절실하다. 일부 주요 문인들의 작품집이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간행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인들의 작품이 연구자들이나 출판 기획자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 혹은 간행되었다 하더라도 워낙 급작스럽게 날림으로 나와 그 판본을 의심하게 만드는 책도 적지 않다. 출판사장이 어느 때와 다르게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장기적인 기획으로 조급스러우려다 꾸준하게 이들 작품을 정리해 간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시에서는 정지용, 김기림, 오장환, 이용악, 백석 정도가 민을 만한 출판사에서 제대로 전집의 형태로 간행되었지만, 소설쪽은 이기영 선집, 박노갑 선집이 나온 것을 빼고는 아직 제대로 된 전집출간을 보지 못했다. 이태준, 박태원 전집이 지금도 간간히 출간되고 있는 정도다. 평론가로는 박영희와 안함광이 얼마 전에 전집, 선집의 형태로 출간되었고, 이원조 전집이 출간되었지만 연구자들에게조차 제대로 보급되지 못했다. 그 외에 월북 문인들의 작품은 여기저기 산재되어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힘든 형편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작품을 접하기가 녹녹치 않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월북문인들의 전집 출간은 해금 조치 10년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은 비단 월북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인 전반에 걸친 공통된 사정이긴 하다. 내로라 하는 우리나라 대형 단행본 출판사들이나 전집 출판사들이 이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이참에 정부의 문화관계부처에서도 이런 출판 기획에 지원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학을 우리가 먼저 찾아 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 정리된 정보 없어 학문에도 걸림돌

월북작가가 해금되던 바로 그 시기에 필자는 학문의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학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필자는 자료 찾기에 여념이 없는 선배들을 처음엔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었다. 그때는 그랬었다. 월북문인들을 연구하려면 그 어디에도 깔끔하게 정리된 정보가 없었다.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귀하게 얻은 자료를 무슨 보석 다루듯이 조심조심 읽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영인된 원본 자료에서조차 자기 이름을 잃어버린 문인들, 그래서 임화가 아니고 임○, 안함광이 아니고 안○광, 이기영이 아니고 이○영, 정지용이 아니고 정○용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던 문인들. 그들을 보면서 필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실체를 아프게 느꼈었다. 이제 우리 뒷세대들이 또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도록 만들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